

영향 이론(Influence Theory)의 문제들

최 성호

잘 알려져 있듯이 인과에 관한 단순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은 늦은 인과 박탈의 문제 앞에서 좌초되었다. 이에 루이스는 새롭게 유사 의존 관계(quasi-dependence)를 통하여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루이스(2000, 185)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사 의존 관계에 호소하더라도 루이스의 이론은 쉼표가 소개한 제압의 사례에서 올바른 인과적 판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루이스는 다시금 새로운 이론, 즉 인과에 관한 영향 이론을 들고 나왔다.

나는 어떤 사건 c 가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 따라서 다른 어떤 사건 e 의 원인으로 판정되는 것은 c 가 e 의 원인일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즉, 명백히 사건 c 가 사건 e 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향 이론에 의하여 사건 c 가 사건 e 의 원인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반례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대응들을 고려해 볼 것이다. 그 결과 그 몇 가지 가능한 대응이 모두 실패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1. 루이스의 영향 이론

내가 유리병을 향하여 돌을 던졌고, 그 결과 유리병이 깨졌다고 하자.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내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유리병의 파손에 대한 원인인 것은 “만약 내가 돌을 조금 늦게 던졌다면, 유리병은 조금 늦게 파손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큰 돌을 던졌다면, 유리병은 더 산산히 부서졌을 것이다”, “만약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유리병은 파손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들이 참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처럼 루이스의 영향 이론은 인과관계에 있는 원인 사건을 조금씩 변형시킴에 따라서 결과 사건도 그에 상응하여 조금씩 달라진다는 직관에 기반하고 있다. 루이스(2000, 190)의 이론에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T) C 와 E 가 서로 다른 현실적인 사건일 때 C 가 E 에 영향을 미친다 iff C 의 서로 다른 그리고 너무 멀지 않은 변형들 C_1, C_2, \dots 의 $\neg C$ 의 현실적인 변형을 포함하는 어떤 실질적인(substantial) 범위가 있고, 적어도 몇몇은 서로 다른 E 의 변형들 E_1, E_2, \dots 의 어떤 범위가 있어서, 만약 C_1 이 발생했다면 E_1 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C_2 가 발생했다면 E_2 가 발생했을 것이다 등등.

여기서 C 의 변형(alteration)이란 C 의 매우 연약한 판본(very fragile version)이거나 혹은 C 와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C 와 숫적으로 다른(numerically different) 매우 연약한 대안 사건(fragile alternative event)이다.

나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루이스 자신이 제시하는 위의 정의가 아니라 그와 외양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다음의 (IT')을 통하여 논변을 전개할 것이다.

(IT') 서로 다른 두 현실적인 사건 c 와 e 에 대하여, c 가 발생하는 시간이나 c 가 발생하는 방식, 혹은 사건 c 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사건 c 의 현실적인 변형(alteration)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게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여 사건 e 가 발생하는 시간이나 사건 e 가 발생하는 방식, 혹은 사건 e 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변화할 때, 사건 c 가 사건 e 에 영향을 미친다.

(IT)와 (IT') 사이에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결국 사건 c의 서로 다른 멀지 않은 변형들이란 다름 아니라 사건 c가 발생하는 시점이나 방식, 혹은 사건 c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루이스(2000, 190) 자신도 원인 사건이 결과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간단히 “[결과 사건의] 발생 방식(how), 발생 시점(when) 그리고 발생 여부(whether)이 [원인 사건의] 발생 방식, 발생 시점 그리고 발생 여부에 의존하는 패턴”이 있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루이스는 인과 관계가 위와 같이 정의된 영향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2000, 191)는 영향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행적이지 않지만, 인과 관계는 변함없이 이행적이라고 믿고 있고, 이에 영향 이론에서 인과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C1) 서로 다른 사건 c와 e에 대하여, c는 e의 원인이다 iff 서로 다른 사건들, a_1, a_2, \dots, a_n 가 있어서, c가 a_1 에 영향을 미치고, a_1 이 a_2 에 영향을 미치고, \dots a_n 이 e에 영향을 미친다.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 c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그 변화가 사건 c의 현실적인 변형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영향 이론을 잉터리 이론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c를 충분히 과도하게 변화시키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현실 세계에서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다른 사건 e가 변화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c가 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루이스에게 어떤 두 사건 사이의 “거리(distance)”가 어떻게 결정되고, 나아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 c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그 변화가 사건 c의 현실적인 변형으로부터 얼마나 멀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추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추궁을 루이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우리의 인과적 판단 자체가 이미 애매한 만큼, 앞의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이론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루이스의 가능한 대응이 작으나마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너무 멀지 않음 요건(not-too-distant requirement)”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여러 비판에서 구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루이스는 자신의 영향 이론이 잘 알려진 다음의 제압 상황에서 올바른 인과적 판정을 내린다고 논변한다: 상사와 소령이 시점 t에 동시에 군인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린다고 하자; 군인들은 두 사람의 명령이 서로 다를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 상사와 소령이 동시에 “진군!”이라고 외쳤고, 군인들은 그 두 명령을 모두 들었다; 군인들이 진군한다. 이 상황에서 군인들이 진군하게 야기한 것은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소령의 명령이고, 이에 소령의 명령이 군인들의 진군을 야기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을 제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루이스(2000, 191)는 이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사의 명령을 고정한 상태에서 소령의 명령을 변화시키면, 병사들의 반응은 그에 상응하여 달라질 것이다. 만약 소령이 “숨어라!”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숨었을 것이고, 만약 소령

이 “퇴각!”이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퇴각했을 것이며, 등등. 한편, 소령의 명령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사의 명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비록 군인들의 진군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상사의 명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령의 명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 여부-발생 여부 의존관계(whether-whether dependence)”와 관련하여 상사의 명령과 소령의 명령은 대칭적이지만, 군인들의 진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소령의 명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의존하는 반면에 상사의 명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비대칭적이고, 바로 그러한 비대칭성에 의하여 소령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이지만 상사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루이스의 서술은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분명 인과를 사건들이 발생하는 방식, 발생하는 시점, 그리고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의존 관계의 패턴(a pattern of dependence of how, when, and whether upon how, when, and whether)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위의 제압 사례에서 그는 “발생 시점-발생 시점 의존 관계(when-when dependence)”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그 사례에서 발생 시점-발생 시점 의존 관계를 고려할 때, 루이스의 영향 이론이 잘못된 인과적 판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앞서 서술한 사례에서는 상사와 소령이 동시에 명령을 내렸고, 군인들은 그 두 명령을 동시에 들었던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이제 소령은 현실 세계에서 그가 “진군!”이라고 외친 시점 t 에 그대로 외치지만 상사는 현실 세계에서 그가 “진군!”이라고 외친 시점 t 보다 1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치는 반사실적 상황을 고려해 보자. 이 반사실적 상황에서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을 먼저 들을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 1분 일찍 진군할 것이다. 유사하게, 소령이 명령을 내리는 시점을 고정된 상태에서 상사가 시점 t 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쳤다고 가정하면, 군인들은 소령의 명령이 듣기 10분 전에 상사의 명령을 먼저 들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군인들은 10분 일찍 진군하였을 것이다.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 따르면, 이는 군인들의 진군이 발생하는 시점은 상사의 명령이 발생하는 시점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서 상사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서 상사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으로 판정된다.

폴(2000, 24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제압의 사례에서만 국한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c_1 이 e 를 야기함에 있어서 c_2 를 인과적으로 늦게 박탈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c_2 에서 출발하는 과정이 c_1 에서 출발하는 과정보다 느릴 때 나타난다. 가령, c_1 이 e 를 야기하는 시점이 c_1 이 없는 상황에서 c_2 가 e 를 야기했을 시점보다 1분 빠르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e 가 발생하는 시점은 인과적으로 박탈되는 c_2 가 발생하는 시점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만약 c_1 이 발생하는 시점을 고정된 상태에서 c_2 가 5분 빨리 발생했다면 e 는 그에 상응하여 현실 세계에서보다 빨리 발생했을 것이고, 만약 c_1 이 발생하는 시점을 고정된 상태에서 c_2 가 10분 빨리 발생했다면 e 는 그에 상응하여 현실 세계에서보다 좀 더 빨리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몇 가지 대응들

루이스는 상사가 1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치는 사건이나 상사가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치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 상사가 “진군!”이라고 외치는 사건으로부터 너무 먼 변형(too-distant alteration)이기 때문에, 애초 자신의 (IT')에 의해서 상사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 받지 못한다고 불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사가 소령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명령을 내렸다면 군인들의 진군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

할 때, 이러한 루이스의 가능한 불평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도대체 상사의 명령이 발생하는 시점을 적절히 변화시킴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명령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사가 “진군!”이라고 (현실 세계에서 상사가 외치는 시점보다) 조금 일찍 외치는 사건은 그러한 변형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루이스가 이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너무 멀지 않음 요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나의 논변을 거부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¹⁾: 소령의 명령이 발생하는 시점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시점 t 와 동일한 반면 상사의 명령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시점 t 보다 10분 일찍 발생하는 반사실적 상황을 고려해 보자. 그 반사실적 상황에서 상사는 시점 t 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명령한다; 그 직후 군인들은 진군한다; 상사가 명령을 내린 10분 후, 즉 시점 t 에 소령은 “진군”이라고 외친다; 상사의 명령을 듣고 진군하던 군인들은 소령의 명령을 새롭게 듣는다; 그들은 소령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진군을 한다; 만일 이와 같다면, 그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군인들의 진군이 2번 발생한다. 하나는 상사가 시점 t 보다 10분 일찍 내린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진군하는 사건 a_1 이고, 다른 하나는 소령이 시점 t 에 내린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진군하는 사건 a_2 이다. 이 때, 논변을 위하여 그 반사실적 상황에서 군인들이 진군하는 현실적인 사건의 상대역(counterpart)은 a_1 이 아니라 a_2 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 가정 하에서 반사실적 조건문 “만약 상사가 현실 세계에서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쳤다면, 군인들은 현실 세계에서보다 10분 일찍 진군할 것이다”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상사가 현실 세계에서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친 반사실적 상황에서, a_2 가 발생할 것이고, 그 a_2 는 현실 세계에서 군인들이 진군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근거에서 진행한 나의 논변은 실패하였다.

나는 이러한 루이스의 가능한 비판은 문제의 반사실적 상황에서 군인들이 진군하는 현실적인 사건의 상대역(counterpart)은 a_1 이 아니라 a_2 이라는 가정에 의존하지만, 그 가정의 설득력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위와 같은 루이스의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는 사례를 얼마든지 고안할 수 있다.

수지와 빌리가 유리병을 향해 동일한 거리를 두고 동일한 세기로 돌을 던진다; 수지가 빌리보다 1초 빨리 돌을 던져서, 수지의 돌은 빌리의 돌보다 먼저 유리병에 도달하여 유리병을 파손한다. 이 상황에서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유리병의 파손에 대한 원인이지만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 이 사례에서도 나는 루이스의 영향 이론이 잘못된 인과적 판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빌리가 1분 일찍 돌을 던졌다면, 유리병은 현실 세계에서보다 조금 빨리 파손되었을 것이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례에서는 군인 진군 사례와는 달리 루이스의 가능한 불만이 애초부터 봉쇄된다. 왜냐하면, 빌리가 1분 일찍 돌을 던진 반사실적 상황에서 유리병의 파손은 빌리가 던진 돌에 의해서 파손되는 사건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 반사실적 상황에서 유리병이 파손되는 현실적인 사건의 상대역은 빌리가 던진 돌에 의해서 파손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현실적인 파손보다 조금 일찍 발생한다. 만일 이와 같다면, “만약 빌리가 1분 일찍 돌을 던졌다면, 유리병은 현실 세계에서보다 조금 빨리 파손되었을 것이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로 루이스의 다음과 같은 가능한 대응을 고려해 보자. 루이스(2000, 189-190)는 영향이라는 개념이나 원인이라는 개념이 정도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군인 진군 사례

1). 한준희는 나의 논변에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

에서 그가 정확히 주장하는 바는 아마도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령보다도 군인들의 진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원인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more of a cause)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의할 때, 우리는 루이스가 나의 논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만약 상사가 현실 세계에서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쳤다면, 군인들은 현실 세계에서보다 10분 일찍 진군했을 것이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령보다도 군인들의 진군에 더 큰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원인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사실적 조건문 S : “만약 A가 발생했다면, 군인들의 진군은 현실 세계에서와 달랐을 것이다”에서 ‘A’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S가 참이 되게 하는 소령의 현실적인 명령의 (그 현실적인 명령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변형들은 광범위하지만, 그와 같은 상사의 현실적인 명령의 (그 현실적인 명령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변형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령이 “퇴각”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이나 ‘소령이 “숨어라”라고 명령하는 사건’을 ‘A’에 대입하면, 반사실적 조건문 S는 참이 되는 반면에 ‘상사가 “퇴각”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이나 ‘상사가 “숨어라”라고 명령하는 사건’을 ‘A’에 대입하면, 반사실적 조건문 S는 거짓이 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루이스의 이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선 그러한 대응은 인과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상충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과적 직관에 따르면, 비록 상사의 명령이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특성을 갖지만 그럼에도 소령의 명령이 그러한 특성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이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사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특성을 전혀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상사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인과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사건이라고 믿는다³⁾.

게다가 군인 진군 사례에 약간의 살을 덧붙임으로써 위와 같은 대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소령과 상사가 속한 국가의 군대 규칙에 따르면, 소령은 오직 “진군”이라는 명령만을 내릴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소령은 목에 독특한 병이 있어서 시점 t 이전에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지만, 상사는 그러한 병이 없다고 하자. 이러한 사실들을 군인 진군 사례에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소령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이지만 상사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인과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루이스의 영향은 그 반대의 판정을 내린다.

먼저 이 상황에서 소령이 “퇴각”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이나 혹은 소령이 시점 t보다 10분 일찍 명령을 내리는 사건은 모두 소령의 현실적인 명령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변형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어떤 현실적인 사건의 변형들의 범위를 적어도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반사실적 조건문 S에서 ‘A’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S가 참이 되게 하는 소령의 현실적인 명령의 (그 현실적인 명령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변형들보다 상사의 현실적인

2). 나의 논변에 대하여 이와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정인교 교수의 도움이 컸다. 실제로 루이스 자신도 이러한 식의 대응을 고려하는 듯하다 (Paul 2000, 249).

3). 홀(2000, 20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인 사건이 결과 사건에 얼마나 근접한가(being proximate)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하여 결과 사건에 보다 더 큰 정도로 혹은 보다 더 작은 정도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가령, 우리는 소령의 출생은 소령의 명령에 비하여 훨씬 작은 정도로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홀의 관찰은 루이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령의 명령과 상사의 명령은 군인들의 진군에 거의 동일한 정도로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에 만약 소령의 명령과 상사의 명령 모두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면, 사건들 사이의 근접성과 관련된 정도의 측면에서 그 둘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명령의 (그 현실적인 명령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변형들이 더 광범위할 것이다. 이를테면, '상사가 시점 t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을 'A'에 대입하면 반사실적 조건문 S는 참이 되고 동시에 상사가 시점 t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은 현실적인 상사의 명령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변형인 반면에, 비록 '소령이 "퇴각"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이나 '소령이 시점 t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사건'을 'A'에 대입하면 반사실적 조건문 S가 참이 되지만 소령이 "퇴각"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이나 소령이 시점 t보다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사건은 현실적인 소령의 명령으로부터 너무 먼 변형이다. 만일 이와 같다면, 문제의 상황에서 루이스의 영향 이론은 상사의 명령이 소령의 명령보다도 군인들의 진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원인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군인들의 진군을 야기한 것은 명백히 소령의 명령이지 상사의 명령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루이스는 위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령보다도 군인들의 진군에 더 큰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고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령의 명령이 상사의 명령보다도 군인들의 진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직관적인 수준에서 그 명제를 이해할 때,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폴의 대응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폴(2000, 249)은 앞에서 세 번째로 고려하였던 루이스의 가능한 대응이 제압의 사례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반면에 늦은 인과 박탈의 사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늦은 인과 박탈의 사례에서 올바른 인과적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명제가 결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명제를 법칙적으로 함축해야 한다는 요건을 영향 이론에 덧붙여야 한다고 논변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견해는 많은 점에서 불만스럽다. 먼저 그녀는 왜 제압의 사례에서 루이스의 대응이 성공적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우리는 그 대응이 실패했다고 볼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폴은 늦은 인과 박탈의 사례와 제압의 사례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루이스의 대응이 제압의 사례에서와는 달리 늦은 인과 박탈의 사례에서는 실패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실패한 원인 후보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금 변한 반사실적 상황에서 결과 사건이 조금 변화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제압의 사례에서 나타나든 혹은 그것이 늦은 인과 박탈의 사례에서 나타나든 마찬가지이고, 만일 폴이 루이스의 대응이 늦은 인과 박탈의 사례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제압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향 이론을 수정한 폴의 이론은 제압의 사례에서 올바른 인과적 판정을 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폴(2000, 248) 자신도 인정하듯이 제압된 원인 후보(상사의 명령)가 결과 사건(군인들의 진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 사건을 법칙적으로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는 폴의 이론에 의하여 상사의 명령이 군인들의 진군에 대한 원인으로 판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폴의 대응은 실패하였다.

4. (IT')를 수정하기

군인 진군 사례에서 루이스의 이론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상사가 10분 일찍 "진군"이라고 외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소령의 명령이 아니라 상사의 명령이 군인들의 진군이 야기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인과 박탈이 나타나는 상황, 즉 어떤 사건 c1이 사건 e를 야기함에 있어서 사건 c2를 인과적으로 박탈하는 상황에서 c2가 발생하는 시점을 적당히 앞당기면 현실 세계에서와는 달리 c2가 e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루이스 이론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숙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분석하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된 의존관계를 배제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T*) 서로 다른 두 현실적인 사건 c와 e에 대하여, c가 발생하는 방식, c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사건 c의 현실적인 변형(alteration)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게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여 사건 e가 발생하는 시간이나 사건 e가 발생하는 방식, 혹은 사건 e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변화할 때, 사건 c가 사건 e에 영향을 미친다.

이 (IT*)는 1절에서 소개한 (IC1)와 함께 “군인 사례”에서 올바른 인과적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상사가 “진군!”이라고 외치는 시점을 고정한 채로 상사의 명령이 발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더라도 - 예를 들어, 상사가 “퇴각!”이라고 외친다 -, 여전히 군인들은 현실 세계에서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군할 것이다. 반면, 일단 소령이 “진군!”이라고 외치는 시점을 고정한 채로 소령의 명령이 발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 - 예를 들어, 소령이 “퇴각!”이라고 외친다 -, 군인들의 행동은 그에 상응하여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전략이 궁극적으로 영향 이론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수지와 빌리가 유리병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례를 고려해 보자; 이번에는 수지와 빌리가 동시에 돌을 던지지만 수지가 빌리보다 돌을 더 세게 던져서, 수지의 돌이 유리병에 먼저 도달했다; 유리병은 수지가 던진 돌에 부딪혀 깨진다. 이 상황에서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유리병의 파손에 대한 원인이지만,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

2절에서 내가 일반적인 늦은 인과 박탈의 상황에 대해서 논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루이스의 영향 이론은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유리병이 파손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판정한다. 왜냐하면, 수지가 돌을 던지는 시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빌리가 좀 더 빨리 돌을 던졌다고 가정하면, 그 상황에서 빌리의 돌이 수지의 돌보다 좀 더 이른 시각에 유리병에 도착하여 유리병을 파손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IT*)와 (IC1) 역시 그러한 잘못된 판정을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유리병의 파손 사이에는 “발생 방식-발생 방식 의존 관계(how-how dependence)”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지가 돌을 던지는 세기는 현실 세계에서와 동일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빌리가 수지보다 조금 더 세게 돌을 던진다고 가정하면, 그 상황에서 빌리의 돌이 수지의 돌보다 먼저 유리병에 도달하여 유리병은 빌리의 돌에 의하여 조금 더 산산히 부서질 것이다. 유사하게 만약 빌리가 수지보다 훨씬 세게 돌을 던졌다면, 유리병은 훨씬 더 산산히 부서졌을 것이다. 이는 유리병이 어떻게 파손되는지가 빌리가 돌을 어떻게 던지는지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이와 같다면, (IT*)와 (IC1)에 의해서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유리병의 파손에 대한 원인이라는 판정을 받는다. 이는 (IT*)와 (IC1)이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인과적 판정을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IT')을 (IT*)으로 수정하는 것이 수지-빌리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인 사례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IT*)는 그 자체로 군인 사례의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고, 수지-빌리 사례의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나는 그러한 진단을 취하는 이가 수지-빌리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6절에서 그러한 전략이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논변할 것이다.

5. 멘지스 전략

논의를 위하여 수지와 빌리가 동시에 시점 t_1 에 돌을 던졌고, 수지의 돌과 유리병이 시점 t_2 에 부딪혔다고 하자. t_2 시점 직전에 빌리의 돌은 유리병을 향해 날아가지만, 아직 유리병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빌리의 돌이 유리병에 도달하는 것은 t_2 이후의 어느 시점이고, 그 시점에 유리병은 이미 수지의 돌에 의해서 깨어져있다. 이제 t_2 시점 직전에 빌리의 돌이 어느 공간적 지점을 지나는 사건을 사건 a 라 하자. 이 사건 a 는 (IT*)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⁴⁾. 빌리의 돌이 t_2 시점에 좀 더 빨리 유리병을 향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빌리의 돌이 t_2 시점에 좀 더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리병은 수지의 돌에 의하여 현실 세계에서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파손될 것이다. 이에 반해서 t_2 시점 직전에 수지의 돌에 어떤 변화를 가하면, 그에 상응해서 유리병의 파손도 변화한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 현실 세계에서처럼 물체의 속도가 상한-광속-을 갖지 않는 가능 세계에서는 위의 관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논변할 수 있을 것이다: 물체의 속도가 상한을 갖지 않는 어떤 가능 세계 W 에서 수지와 빌리가 유리병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수지의 돌이 먼저 유리병을 파손되었다고 하자; 수지의 돌에 의해서 유리병이 파손되는 시점 t_2' 직전에 빌리의 돌이 어느 공간적인 지점을 통과하는 사건을 a' 이라 할 때, 만약 t_2' 직전에 빌리의 돌이 (광속보다 훨씬 크게) 매우 매우 빨리 유리병을 향해 날아갔다면 유리병은 그 가능 세계에서 실제로 파손된 시점보다 좀 더 빨리 혹은 다른 방식으로 파손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건 a' 은 유리병의 파손에 (IT*)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t_2' 직전에 빌리의 돌이 매우 매우 빨리 유리병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으로 a' 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건 a' 의 (가능 세계 W 에서) 현실적인 변형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는 (IT*)의 요건을 직관적인 수준에서 위배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변화시킬 때의 반사실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면, 매우 반직관적인 귀결을 얻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능 세계 W 에서 두 비행기가 충돌했다고 할 때, 그 충돌 지점에서 1 광년 떨어진 곳에서 어떤 물체가 보통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건 b 을 고려해 보자. 만약 그 물체가 매우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b 를 변화시킬 때의 반사실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사건이 두 비행기의 충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면, 사건 b 는 두 비행기의 충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물체가 두 비행기의 충돌 지점을 향하여 광속보다 10배 빨리 날아갔다면, 비행기의 충돌은 (가능 세계 W 에서 발생하는 비행기의 충돌과)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반직관적인 귀결이다. 우리는 물체는 명백히 두 비행기의 충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것은 물체가 매우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기의 충돌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으로 사건 b 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건 b 의 (가능 세계 W 에서) 현실적인 변형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는 (IT*)의 요건을 위배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빌리의 돌이 매우 매우 빨리 유리병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으로 a' 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건 a' 의 (가능 세계 W 에서) 현실적인 변형으로부터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는 (IT*)의 요건을 직관적인 수준에서 위배한다. 결국 가능 세계 W 에서도 사건 a' 는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비록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 모두 (IT*)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4) 이 지점에서 영향이 (IT')이 아니라 (IT*)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IT')을 통하여 영향이 정의될 경우 명백히 사건 a 는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가 일정 정도 일찍 발생한 반사실적 상황에서 유리병은 수지의 돌이 아니라 빌리의 돌에 의해 파손되고, 이에 따라서 유리병은 현실 세계에서 파손되는 시점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현실 세계에서 파손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파손될 것이다.

중요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들의 과정, 즉 시점 t_1 과 t_2 사이에서 수지의 돌과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들의 과정, 즉 시점 t_1 과 t_2 사이에서 빌리의 돌과 관련된 사건들은 그렇지 못하다. 만일 이와 같다면, 누군가 비록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유리병의 파손에 (IT*)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전자와 후자를 연결하는 과정에 포함된 사건들 모두가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논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형식화하기 위하여, 먼저 다음의 정의를 도입하자.

(IP) 서로 다른 사건 c 와 e 에 대하여 c 에서 e 로 가는 영향 과정이 존재한다 iff c 가 발생하는 시점과 e 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서로 다른 시점들로 이루어진 임의의 유한한 나열 $\langle t_1, t_2, \dots, t_n \rangle$ 에 대하여, 그 시점들에 각각 발생하는 현실적인 사건들의 나열 $\langle x_1, x_2, \dots, x_n \rangle$ 있어서 c 는 x_1 에 영향을 미치고, x_1 은 x_2 에 영향을 미치며, \dots x_n 은 e 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유리병의 파손 사이에는 영향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지가 던진 돌에 의하여 유리병이 파손되기 직전의 어떤 시점을 t^* 라 할 때, t^* 를 포함하는 어떤 시점들의 나열, 가령 $\langle t^* \rangle$ 를 고려해 보라. t^* 에 빌리가 던진 돌이 어떤 공간적인 지점을 통과하는 사건을 a 라 할 때, 분명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a 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a 는 유리병의 파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유리병의 파손 사이에는 영향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유리병의 파손 사이에 영향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찮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IC1)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

(IC2) 서로 다른 사건 c 와 e 에 대하여 c 는 e 의 원인이다 iff 서로 다른 사건들, a_1, a_2, \dots, a_n 가 있어서, c 에서 a_1 로 가는 영향 과정이 있고, a_1 에서 a_2 로 가는 영향 과정이 있으며, \dots a_n 에서 e 로 가는 영향 과정이 있다.

이 (IC2)에 따라서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유리병의 파손에 대한 원인으로 판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IC2)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영향 과정의 연쇄가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수지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유리병의 파손 사이에는 단일한 영향 과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IC2)에 의하여 전자는 후자의 원인으로 판정받는다.

주의깊은 독자라면 수지-빌리 사례가 제기하는 어려움으로부터 영향 이론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에서 취한 전략이 확률적인 인과의 맥락에서 이른 인과 박탈 상황이 제기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루이스의 확률적 인과 이론을 구제하기 위하여 멘지스(1989, 656)가 취한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아챘을 것이다. 사실 나는 루이스의 영향 이론을 확률적인 인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때⁵⁾, 이른 인과 박탈의 상황은 멘지스가 고려한 문제, 즉 인과적으로 박탈되

5) 루이스(1986, 176-7)가 단순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을 확률적 인과로 확장하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반사실적 상황에서 결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값과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반사실적 상황에서 결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값에 주목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IT)를 다음과 같이 확률적 인과로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PIT) C와 E가 서로 다른 현실적인 사건일 때 C가 E에 영향을 미친다 iff C의 서로 다른 그리고 너무 멀지 않은

는 사건이 결과 사건의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 제기하고, 멘지스 전략은 그 문제에서 다시금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확률적 인과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수지-빌리 사례가 제기하는 어려움을 멘지스 전략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2절에서 제시하였던 군인 사례의 문제는 (T'')을 (T*)로 수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4절에서 제시하였던 수지-빌리 사례의 문제는 전술했던 멘지스 전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다음 절에서 (T'')을 (T*)로 수정하는 것이나 멘지스 전략이 궁극적으로 루이스의 영향 이론을 여러 반례들에서 구제함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논변할 것이다.

6. 멘지스 전략의 실패

다음의 사례에서 (IT')과 (IC1)으로 이루어진 루이스의 영향 이론이 올바른 인과적 판정을 내리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경호가 철수를 향하여 연속으로 두 발의 총알을 발사하였고, 그 두 발의 총알은 철수 가슴의 정확히 같은 지점을 관통한다고 하자. 아울러, 총에 소음기가 장치되어 있어서 발사 소리는 전혀 없다고 하고, 두 번째 총알에 의한 중력 효과는 무시하자. 이 때, 우리는 명백히 첫 번째 총알이 철수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총알은 단순히 첫 번째 총알이 철수의 몸에 만들어낸 구멍을 통과할 뿐, 철수의 죽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총알의 발사되는 사건 c는 철수의 죽음 e와 인과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사건이라 하겠다.

루이스의 이론에서 첫 번째 총알이 철수의 죽음에 대한 원인으로 판정된다는 것은 하찮다. 문제는 두 번째 총알이 그러한 판정을 받는지 여부이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두 번째 총알이 철수의 머리를 향하여 발사되었다면, 철수가 (현실 세계에서와는 달리) 머리와 가슴의 총상에 의하여 사망할 것이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두 번째 총알이 철수의 머리를 향하여 발사되는 사건은 두 번째 총알이 철수의 가슴을 향해 발사되는 사건 c의 멀지 않은 변형(alteration)이 될 것이다. 이는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 의하여 사건 c가 사건 e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e에 대한 원인으로 판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앞서 논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사건 c는 사건 e에 대한 원인이 결코 아니다.

문제는 (IT')과 (IC1)을 (IT*)과 (IC2)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선 (IT')을 (IT*)로 수정하는 것은 c가 e의 원인이라는 영향 이론의 판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건 c와 사건 e 사이에는 발생 방식-발생 방식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멘지스 전략을 채택하여 (IC1)을 (IC2)로 수정하는 것도 그러한 판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건 c와 사건 e 사이에는 단일한 영향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호가 두 번째 총알을 발사하는 시점을 t1, 두 번째 총알이 철수의 가슴에 매우 근접한 시점을 t2, 경호의 두 번째 총알이 철수의 가슴에 난 구

변형들 C1, C2, ... 의 - C의 현실적인 변형을 포함하는 - 어떤 실질적인(substantial) 범위가 있고, 적어도 몇몇은 서로 다른 E의 변형들 E1, E2, ... 의 어떤 범위가 있어서, 만약 C1이 발생했다면 E1가 발생할 확률이, C1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E1이 발생할 확률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만약 C2이 발생했다면 E2가 발생할 확률이, C2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E2이 발생할 확률보다 훨씬 크다

명을 통과하는 시점을 t_3 , 그리고 철수가 죽는 시점을 t_4 라 하자. 그리고, t_2 에 경호의 두 번째 총알이 어느 공간적인 지점을 지나는 사건을 d , t_3 에 철수의 몸에 총상이 있는 사건을 f 라 하자. 이 때, c 가 d 에 영향을 미치고, f 가 e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게다가 (IT')에 따르면 사건 d 는 사건 f 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시점 t_2 에 두 번째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이 조금 달랐다면, 철수의 몸에 총상이 있는 사건은 그에 상응하여 조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t_1 과 t_4 사이에 임의의 유한한 시점들의 나열에 대하여 (IP)가 만족되고 이에 따라서 사건 c 와 사건 e 사이에 단일한 영향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다면, (IT*)와 (IC2)에 의하여 사건 c 가 사건 e 의 원인으로 판정된다. 결국 멘지스 전략은 루이스의 이론을 성공적인 인과 이론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루이스의 영향 이론을 이루는 (IT')와 (IC1)을 (IT*)와 (IC2)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을 괴롭히는 반례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 게다가 적어도 내게는 (IT*)와 (IC2)를 적절히 수정하여 철수-경호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는다.

7. 진단

군인 진군 사례, 수지-빌리 사례, 그리고 진술했던 철수-경호 사례가 두 가지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영향 이론에 안겨 준다. 먼저 그들 모두에서 어떤 사건 e_1 (상사의 명령, 빌리가 돌을 던지는 사건, 경호가 두 번째 총알을 발사함)이 다른 사건 e_2 (군인들의 진군, 유리병의 파손, 철수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_1 를 적절히 변화시키면 e_2 가 그에 상응하여 변화한다. 그리고, 이는 사건 e_1 이 사건 e_2 에 (IT')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은 e_1 이 e_2 의 원인이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그들은 사건 e_1 이 사건 e_2 에 (IT')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e_1 이 e_2 의 원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실제로 사건 e_1 이 사건 e_2 을 야기하는 경우, e_1 을 조금 변화시킴에 따라서 e_2 역시 그에 상응하여 변화한다는 것은 인과에 관한 우리의 확고한 직관들 중 하나이다⁶⁾

다음으로 그 사례들이 루이스의 영향 이론에 제기하는 문제들은 모두 그 이론이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모종의 인과적 과정을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직관을 무시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철수-경호 사례에서 경호가 두 번째 총알을 발사하는 사건이 철수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은 철수가 경호의 두 번째 총알에 의하여 죽지 않았다는 직관에 근거하고, 그 직관은 철수가 두 번째 총알을 발사하는 사건과 경호가 죽는 사건 사이에는 모종의 인과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관계한다. 이러한 나의 관찰은 그러한 직관을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은 보존량을 보유 혹은 전달하는 인과적 과정과 보존량의 교환을 포함하는 인과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포착하는 보존량 이론⁷⁾이 수지-빌리 사례나 경호-철수 사례에서 비교적 하찮게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인과적 판정을 내린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루이스의 이론을 보완함으로써 인과에 대한 성공적인 분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은 모

6). 웨퍼(2000, 168) 역시 그의 제압 사례를 논의하면서 인과 관계에 있는 두 사건 사이에, 영향 이론이 호소하는 종류의 반사실적인 관계(the variational type of counterfactual dependence)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그는 루이스의 애초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반사실적 변형(counterfactual variation)과 인과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직관을 올바르게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7). 보존량 이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우 2000)을 참조하라.

중의 인과적 과정을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직관을 담아내는 조건을 그 이론에 첨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이 글을 읽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정인교 교수님, 윤보석 박사님 그리고 한준희 학형께 감사드립니다.

Dowe, P. (2000), *Physical Cau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l, N. (2000), "Causation and the Price of Transitivity", *Journal of Philosophy* XCVII: pp.165-181

Lewis, D. (1986), *Philosophical Papers Volume II*, Oxford University Press.

----- (2000), "Causation As Influence", *Journal of Philosophy* XCVII: pp.165-181

Menzies, P. (1989), "Probabilistic Causation and Causal Processes: A Critique of Lewis", *Philosophy of Science* 56: pp.642-663

Paul, L. (2000), "Aspect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XCVII: pp.165-181

Schaffer, J. (2000), "Trumping Preemption", *Journal of Philosophy* XCVII: pp.165-181